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고찰

—당대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민족문화 보존을 중심으로

김 정 하*

《目 次》

- | | |
|--------------------|----------------------|
| I. 서론 | III. 이중적 정체성의 한계와 초월 |
| II.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 IV. 결론 |

I. 서론

몇 해 전, 연변에서 출간되는 한 신문에 어느 조선족 지식인의 “우리는 ‘자장면’인가?”라는 수필이 실렸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음식’, 중국에서는 ‘한국음식’으로 여겨지는 ‘자장면’을 빌어 중국 조선족 자신들의 모호한 자기정체성의 고민을 드러낸 자조적 비유다.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은 선형적이고 고정불변의 관념이라 보기 어렵다. 현실적 사정과 필요에 의해 언제나 수정되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이런 자기정체성 개념이 기왕에도 그 모호함이 지적돼온 ‘민족’ 개념과 맞물릴 때 혼선이 빚어진다. 불행하게도 중국 조선족이야말로 이에 해당하는 존재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국내에서 출간된 중국 조선족 관련 기존 저서들은 ‘민족적 자기정체성’을

*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1) ‘자기정체성’은 : 당사자들과 주위의 교호작용으로부터 나온 상상된(imagined) 산물이다(B. Anderson).

대한 정의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보고 조선족 문화를 연역적으로 설명해왔다. 그 결과 근대 이래 정치, 경제 등에 의해 영향 받고 변화된 부분은 제쳐둔 채 다분히 감정적으로 “조선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사회관습을 지키고 잡혼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단호하게 지켜왔다.”는 천편일률적 결론을 내린다.²⁾ 이렇게 맹목적 민족관념을 확대재생산한 저서를 읽고 조선족들과 접촉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곤란에 직면하거나 배반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다행히 최근 현지조사가 활발해지면서 조선족의 의식에 대해 논의가 현실에 접근하고 있다. 그 중 비교적 조선족 자신의 의식에 가깝게 접근한 대표적 저서 두 편을 언급해보자.

한상복, 권태환은 “한국말을 쓰고 조선족끼리 모여 살면서도 중국을 자기나라로 생각한다”³⁾는 사실을 “정체의식의 변화”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생활경험과 현재의 생활세계를 계속 공유해온 민족으로서 바로 이런 특성이 조선족으로 하여금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던 배경요인”이고, 조선족의 국가의식이 높아진 이유를 소수민족 우대정책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이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 요소인가를 명확히 전제하지 않은 채 “민족의식은 국가의식에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수립되었다”고만 말해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관련성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광규는 ‘한민족 정체성’을 “긍정적 정체성”과 “부정적 정체성”으로 나누어 살핌으로써 양면성을 짚어내고 있다.⁴⁾ 즉, “긍정적 정체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을 한민족의 말과 글로 본다. 이에 비해 “부정적 정체성”은 “소수민족으로서의 한계”, “문화대혁명기의 소수민족의 비애”, “개방화 이후 무한경쟁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라 본다. 하지만 그는 “문화민족의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소수민족의 한계”, 혹은 “개방기의 불안감”을 말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와 별도로 ‘재중한인의 성격’, ‘조국관’, ‘민족관’ 등 항목이 설정돼 있지만 각기 다른 범주의 개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조선족의 자기정체성을 이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존논의가 ‘민족관’이나 ‘국가관’을 한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문제다. 이광규도 ‘조국관’은 “문화대혁명기와 항미원조(抗美援朝)기에는 북한을 조국으로

2) 이채진, 「중국 안의 조선족」, 서울 : 청계연구소, 1988, 128면.

3) 한상복, 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93, 93면.

4) 이광규, 「재중한인」, 서울 : 일조각, 1997, 262-266면.

생각했으나 남한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는 조국이 못사는 나라라는 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민족관’은 “1986년 아시아게임과 1988년 올림픽경기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조국을 선사한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이룬 나라라는 생각에서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다”고 하여, ‘조국’, ‘민족’을 혼동해 쓰고 있다.

흔히 우리는 조선족을 ‘중국동포’라 부르며 한국인과의 관련성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자기정체성’ 개념의 가변성을 고려해보면 더욱 객관적인 호칭은 ‘중국 조선족’이다. 기존논의에서 “중국”, “북한”, “한국”으로 혼동돼온 그들의 ‘국가’는 “중국”으로 정리돼야 마땅하다.⁵⁾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본고는 ‘소수’와 ‘주류’, 혹은 ‘주변’과 ‘중심’의 논리를 적용하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은 세계사의 무대에서 ‘소수’이자 ‘주변’에 놓였던 아시아에서, 다시 그 아시아에서도 ‘소수’이자 ‘주변’에 놓였던 한민족이면서도, 또 다시 그로부터 떨어져나가 중국 내의 변방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다. 그야말로 이중, 삼중으로 ‘소수’로서 ‘주변’의 존재인 셈이다.

본고는 이들의 자기정체성 확인 내지 추구가 그들의 처지와 어떻게 연관돼 있고, 어떻게 극복돼야 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민족’과 ‘조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선족의 고뇌와 자기정체성의 혼돈을 ‘이중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초월할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안도현 만보진 홍기춘의 민속촌을 예로 살피고자 한다.

II.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1.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중국 조선족이 자기정체성의 혼돈을 겪게 된 동기와 내력은 자신들의 모국이던 조선의 소멸과 직결돼 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의 중국 조선족이 어떤 이유에서 중국으로 이주해갔고 어떻게 살아왔든 그들 개개인, 혹은 단체의 삶을 좌우하는 자기정체성의 규정에 ‘국가적’이라는 수식을 달게 한다.

19세기 이전에도 조선인들은 ‘자연 재해’나 ‘봉건통치의 폐단’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5) 김석배, “중국조선족의 문화특질”, 『동북아연구』 96-1,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1995, 165면.

간도에서 소위 ‘사잇섬 농사’를 지어왔다. 처음에는 농사철에 맞춰 월경(越境)을 반복하다 차차 자신들이 개척한 황무지에 눌러 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청나라 조정은 조선족들에게 여진족 풍으로 머리를 자르고 옷을 입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선족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조선을 합병하고 대륙을 침략하면서부터였다. 그러자 일제는 1907년 을사보호조약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조선인 보호의 책임”이 있다며 간도에 대해 간섭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구실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간도 문제를 해결해 조선 지배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조선 지배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면 만주에서 쉽게 등을 돌렸다. 1909년 ‘간도 협약’을 통해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는 대신 한일합방이라는 현안을 해결했다.⁶⁾ 이후로도 일제는 1931년 ‘조선인 이민회사 설립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려다 중국인들과 충돌을 빚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재만 조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하여 펼치는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투쟁’이 ‘한국의 독립과 재만 조선인 자신의 해방’이라 규정했다.⁷⁾ 민족을 보존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국가에 기여해야하는 조선족의 당시 입장에서 오늘날 조선족이 겪는 자기정체성 혼돈의 싹이 튼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조선족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의 존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른바 ‘해방전쟁시기’를 거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으로 ‘민족 평등정책’을 실시하여 참정권을 인정했고, 경제적으로도 한족(漢族)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토지개혁을 진행했다.

1949년 ‘신중국(新中國)’ 건설 이후 조선족은 중국 국민으로서 더 확고하게 인정을 받았다. 드디어 1952년에 <연변조선민족자치구>, 1958년에는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조선족은 지난날 ‘모국’이었던 한국과 북한이 분단 상태를 지속해온 데 비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국가, 중국을 갖게 됐다. 이후 조선족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중앙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⁸⁾ 예를 들어 ‘문화대혁명기’에 전개된 ‘반우파(反

6) 이성환,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서울 : 살림, 2005, 79면.

7) 1934년 1월 전국소비에트대회 「中華소비에트共和國憲法大綱」 제14조, 1937년의 7월 「統一戰線宣言」, 1939년 「延安政權 宣言」 참조.

8) 조일남, “우리 주변성이 가지는 의미” 「제2회 민족미학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움 ‘동북아시아

右派) 투쟁'에서는 중앙이 미리 배정해준 인원수에 맞춰 희생자를 색출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태도는 최근까지 이어져 2003년 중국 전역을 휩쓴 조류독감(SARS)이 조선족 자치주를 비껴가자 “중앙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니 세균도 비껴간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러한 태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이 받는 불평등과 어려움은 엄연히 존재한다. 조선족 학자들은 오늘날 중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문제를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대한 요구로 압축된다고 말한다.⁹⁾

우선 국가의 실질적 권력기관인 각급 중공위원회에는 인구비례가 없기 때문에 겪는 불평등이 있다. 자치주를 통치하는 실질적 권력자가 인구 비례를 무시하고 한족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도, 경제적 자치를 보장하는 ‘민족자치법’이 있긴 하지만 경제지배권이 없다. 그러므로 연변의 경우 소위 “지주 산업”이라 불리는 임업마저 중앙정부가 관장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¹⁰⁾ 개혁개방 이후에는 상해와 심천 등 동남부 연해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 뒤늦게 중국 정부는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동서 발전의 축으로 동북삼성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했거니와 이야말로 그동안의 개발이 동남부에 집중돼 왔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로 인해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는 동북삼성, 길림성과 요녕성과 흑룡강성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국경에서의 한족 이외의 소수민족의 거주로 인한 불안이 야기될 것을 염려해, 공공연한 ‘한족(漢族) 이주정책’¹¹⁾을 펼쳐왔다. 그로 인해 조선족 공동체가 붕괴되거나 지역 내에서의 인구비례 저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 밖에도 조선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결혼적령기에 이른 조선족 여성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가능하다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어 하는 소위 “출국열(出城熱)”을 지니고 있다. 사정이 그렇고 보니 농촌에서 농사일로 살아가는 조선족 남성은 배우자를 구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위에 한. 중 수교 이후 소위 “남조선 바람[南朝鮮風]”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

한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 회복' II 자료집, 민족미학연구소, 2003, 34면.

9) 김병호,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 서울: 학고방, 1993, 127면.

10) 유병호, “중국 조선족의 민족의식 및 현존문제들”, 「‘재중국 조선족의 민족의식에 관한 연구’ 발표자료집」, 중앙대 해외민족연구소, 1999, 10면.

11) 김병호, 위의 책, 80면.

다. 조선족 3가구당 1가구 꼴로 한국을 방문해 상당한 외화를 획득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심각해, 한국에서 수입된 ‘노래방(가라OK)’과 ‘룸살롱’ 등 소위 “황색산업”이 번지면서 도덕이 무너지고 인심이 나빠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모범민족”이라 칭송받던 조선족은 오늘날 “교육위기”, “가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현상들이 민족적 정체성의 확인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두드러져 중국 조선족 공동체가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론마저 제기된다.

그렇다고 조선족 일부가 ‘잘 사는 조국’이라 칭하는 한국에 의지해 자기정체성을 찾기도 어렵다. 한국은 <해외동포특례법>을 마련한 바 있지만 유독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만은 자유로운 입국이나 취업에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92년 이후 조선족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한국인이거나 북한인이 아닌 제3의 정체성을 지닌 중국인으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의 경제발전이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사회분위기가 급속하게 변했다. 그런 사회에서 조선족 역시 소수민족으로서 국가의 인정과 보호를 받던 시대와 달리,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중국 사회의 일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특징을 강해지기 시작했다.

기왕에도 사회적 지위를 지향하기로 유명한¹²⁾ 조선족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중 전문기술자나 기업인, 관료, “군중조직 근무자” 등 지식인의 비율이 한족에 비해 두 배나 높다. 더구나 자녀에 대한 교육열, 문화와 교육 분야로의 진출, 젊은 세대의 활동력, 도시문화 선호 성향, 높은 학력이나 문화수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새로운 유행에 민감한 기질, 서비스업이나 상업, 관광업을 선호하는 직업관, 외국과의 거래에 능한 점 등이 두드러진다.

2.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조선족들은 좁은 지역에 함께 모여 살면서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특성을 지녀왔다.

그 덕에 ‘한복’을 입고 ‘김치’를 먹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조선조 후기에 창작된 소설 <장화홍련전>이나 한반도에서는 이미 몇 십 년 전에 사라진 만담이나 재담을 <연변 조선족구연예술단>에서 공연해왔다. 심지어 중국 법률에서 “미신”으로 몰아 절대적으로

12) 조일남, 앞의 논문, 34면.

급하고 있는 무속마저 1999년의 현지조사에서조차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였다. 당국으로서도 소수민족의 생활풍습에 쉽게 손을 대기는 어려웠던 것이다.¹³⁾

그 위에 민족문화를 전수해온 시설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1949년에 심양시에 <조선족 문화예술관>이 건립된 것을 시작으로 1950년에는 합이빈시에 <조선족 문화관>, 장춘, 길림, 통화 3개 지구에는 <조선족 군중예술관>, 그밖에 각지에 다수의 문화관과 문화소가 세워져 집체적으로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협회성적 문화”가 유포됨으로써 조선족의 단합에 기여해왔다. 더구나 1949년에는 연변대학이 설립된 것을 비롯하여 신문, 출판, 예술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하려는 노력이 집단적으로 전개돼왔다.

하지만 민족의 동질성을 뒷받침하는 민족문화의 보존도 쉽지만은 않았다. 구한말과 일제 시대에 중국으로 월경(越境)하면서 지니고 간 전통문화는 다른 민족문화와의 접촉, 사회주의의 영향, 개방화 및 시장경제의 영향, 한국 대중문화 및 자본주의의 영향 등으로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1958년에는 “우파투쟁”이 시작되면서 보호론자들이 “우파분자”로 지목돼 탄압을 받았고, 다시 1966년 이후 10년간의 ‘문화대혁명기’에도 민족지도자들이 처형되거나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1985년 개방 이후로 다시 민족문화 보존활동이 활발해졌다.

민족 고유의 언어를 지키는 일도 “민족어 순결논쟁”에서 보듯 정치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족들 스스로 입시나 취직, 학교 수업에서 조선어보다 한어(漢語)를 사용하는 추세가 점차 변져 민족학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오늘날에는 연변대학에서조차 조선어 강의는 ‘조선어학부’에서만 행해질 뿐이고, 한국어 학술지 역시 《조선어》뿐이다.

명절 역시 민족 전래의 것보다 ‘국제부녀절(3.8.)’이나 ‘노동청년절(5.4.)’ 등 국가가 지정한 경축일이 더 잘 지켜지는 가운데, ‘노인절(8.15)’이란 새로운 명절이 생겨나기도 했다. 제사나 잔치 등 전통의례가 많이 사라진 대신, 남아있다 해도 결혼식 절차에 ‘젓 값 내기’ 등 한족(漢族)의 풍습이 섞인 경우가 많다. 최근 조선족이 부르는 가요는 대개 한국에서 유행하는 대중가요가 그대로 수입되어 불리고 있다. 여가에 하는 놀이도 전통적인 것보다는 ‘민화투’와 ‘포커’, ‘마작’ 등 국적 불명의 놀이가 뒤섞여 있다.¹⁴⁾

한·중 수교 이후에는 모국 방문이나 한국 시민단체와의 교류,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13) 최길성, “중국 조선족 무속 답사기”,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39면.

14) 조경만, “중국 요녕성 조선족 동포들의 문화전승과 문화실천에 관한 인류학적 접근”, 『중국 조선족 및 남한의 민속을 통해 보는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 심포지움 자료집, 민족미학연구소, 2001. 참조 바람.

통한 정보교환 등에 힘입어 ‘한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조선족은 소수민족 가운데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유명하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을 드나드는 횡수가 늘어나면서 그 사이 잃어버린 민속이나 전통을 한국을 통해 찾기도 한다.¹⁵⁾

그런 노력은 오늘날 조선족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민족에 대해 긍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얼핏 생각하기엔 민족관념이 희박할 듯한 그들 역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지만 혈통은 조선족”이란 관념을 갖고 있다.¹⁶⁾

Ⅲ. 이중적 정체성의 한계와 초월

1. 적응과 초월의 시도

중국은 ‘신중국(新中國)’ 건설 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더불어 국가를 이룬다는 “다원일체(多元一體)”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헌법에서 “중화민족은 한족을 주체로 하고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다”고 밝힌 “중화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중화민족’은 ‘국적(國籍;nation)’ 개념으로, ‘소수민족’의 ‘족(族;zu)’보다 상위개념이다.¹⁷⁾ 실상 ‘소수민족’이란 말은 “한족 이외의 모든 민족”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이다.¹⁸⁾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조선족은 대략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은 민족적 주체성을 지키면서도 국가 체제에 적응하는 길이 있다. 또는 민족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중국 국민으로 동화되는 길도 있다. 그도 아니면 다른 민족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국가체제를 거부하면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길도 있다.

최근 들어 그동안 “모범민족”이라 불리던 조선족이 “배금주의와 향락주의, 개인주의에

15) 한상복·권태환, 앞의 책, 104면.

16) 김장욱, “연변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 ; 중국 소수민족정책과 민족교육의 역할”, 『민족정체성과 남북한 청소년』,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67면.

17) 중국 조선족들에게 ‘민족’ 관념은 국가적 자기정체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조건적이다. 그들에게 ‘민족’이란 항구적이고 인종적인 요인들보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요인들로 인해 형성된 개념이라 보는 것이 좋을 터이다.(에르네스트 르낭 지음, 신행선 옮김, 『민족이란 무엇인가』, 서울 : 책세상, 2002, 100-101면.

18) 강명상, 『중공의 소수민족정책』, 서울 : 용성출판, 1988, 75면.

물들었다”는 등 다소 부정적 평가를 받는 면도 있다.¹⁹⁾

이를 「연변사회과학원」의 조일남은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일단은 멋진 중국인이 되고 싶다. 그러나 멋진 중국인은커녕 중국인으로도 그냥 잘 되어 주지 않는다.

민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흐르면 국가적 정체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불이익을 우려해 조선족은 가능한 소수민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중국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면도 있다. 민족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조선족 학자조차 “한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발전하자”²⁰⁾며 “장기적 융합”을 권하기도 한다.²¹⁾

하지만 ‘민족 융합’은 어느 한 민족이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의 시책만으로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민족의 소멸이 전제된 융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족 간 문화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²²⁾ 도리어 “문화적 다원일체”를 표방한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국가적 자기정체성을 얻으려면 먼저 그 근거로서 민족적 자기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민족문화의 보존 내지 전수다.²³⁾

그러므로 소수민족의 민족문화 보존과 계승은 생존의 필수적 조건인 셈이지만 알고 보면 그런 논리가 통용될 수 있는 소수민족으로는 조선족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는 조선족의 특권이기도 하다.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초대 주석 주덕해의 기념비에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단결과 변방을 공고히 하는 위대한 사업 가운데서 모든 심혈을 기울였고 충성을 다했다”고 기록돼 있다.²⁴⁾

19) 조일남, 앞의 논문., 33-37면.

20) 김병호, 앞의 책, 139-144 면.참조 바람.

21) 한국인으로서의 제한된 견해에 의해 보면 중국이 소수민족정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점도 중국에는 민족융합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강명상, 위의 책., 255-295면.) ; 민족이란 자본주의 상승시대에 형성된 것이며, 소수민족 문제는 사유제 생산수단에 의한 수탈 때문”이란 마르크스, 레닌의 입장에 따라 이를 사회주의에 이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강명상, 위의 책, 130-131면.)

22) 한상복·권태환, 앞의 책, 97면.

23) 강명상, 위의 책, 284면.;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법률적 성격은 1949년 중국이민정 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 ‘共同綱領’ 선포 이래 헌법과 형법, 「中華人民共和國 民族區域自治法」 등에 규정되어 있다.

24) 연변당사학회, 『연변40년기사』, 중국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1989, 445면.

오늘날에도 문화의 계승 및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이 확실한 목표가 제시된다.

전통문화로 자기민족의 고유한 ‘본새’와 ‘본때’를 보여야 하고 후세들을 교양하여 세세대대로 본 민족의 문화를 계승하도록 하는 것은 민족의 발전에 대하여 자못 중대한 의의가 있다.²⁵⁾

물론 조선족의 처지는 ‘소수민족’이고 주거지 역시 ‘주변’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류’이자 ‘중심’을 열렬히 지향하는 자세는 소수민족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함은 물론,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사는 방법이다.²⁶⁾ 스스로 ‘주류’나 ‘중심’을 자처하는 존재가 그 특권을 당연시하여 ‘주류다움’이나 ‘중심다움’을 지킬 의욕마저 상실하는 데 비하면 이야말로 도리어 ‘주류답고’, ‘중심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조선족은 다른 민족과의 공생에 적극적이었다. 1900년대 초부터 만주지역에서 ‘조선족’ 하면 ‘논농사[水田]’를 연상할 정도로 그들은 뛰어난 영농술과 근면함으로 황무지를 낙토로 만들어 다른 민족과 함께 살 터전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조선족의 민족문화 보존 내지 발전은 “민족지구에서의 사회주의 문명 건설 촉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의 정신적 유대와 자기정체성 확인에 구심점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

재외한민족이 7백만에 이르는 오늘날 ‘민족문화의 중심지’임을 자처해온 현시대의 한국 사회는 지나친 외국문화의 영향으로 전통문화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회구성원들의 민족문화 보존에 대한 열망이 날로 식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비해 민족문화 보존에 사활을 거는 중국 조선족의 자세는, 단지 “중국 문화도 아닌 한국 문화도 아닌 특성을 가진 문화”²⁷⁾에 그치지 않고, 가히 ‘초월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5) 조룡호·박문일,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조선족 발전방략연구』, 중국 심양 : 료녕민족출판사, 1997.

26) 소수민족 문화의 발전이 사회주의 유지라는 중국의 국가 이념에 어긋나는 분열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민족단결은 중국의 물질문명, 정신문명과 민주제도의 건설과 발전 가운데서 공고히 되고 강화될 것”(김병호, 앞의 책, 46-47면.)이란 사고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7) 김석배, 앞의 책, 174면.

2. 민족문화의 보존과 상품화

근래에 들어와 민속 문화의 관광 상품화가 문화산업이란 이름으로 각광받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관광이란 공동체성과 자기정체성의 경계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기 위해 회의와 일탈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에 더 새롭고 뚜렷한 공동체성이나 자기정체성을 찾으려는 열망이다.

특히 민속 문화의 관광 상품화는 ‘문화적 동기’나 ‘문화성’²⁸⁾ 면에서 지역, 혹은 집단의 자기정체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문화 관광에 대한 중국 조선족의 각별한 관심은 최근 연길시 등지에 만들어진 ‘조선족 민속촌’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길림성 연길시를 버스로 출발하여 서남쪽 백두산 방향으로 2시간 30분 달려가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만보진 홍기촌이 나온다. 마을 초입에는 경기도 고양농협이 세운 누각이 길을 가로지르며 우뚝 서있고, 도로변의 연못가에는 “조선족 민속촌”이라고 뚜렷하게 새긴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2003년 현재 1백 호, 324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 홍기촌은 오래 전부터 민족의 전래 문화를 보존해오다, 1996년에는 ‘홍기촌 조선족 민속촌’, 2002년 “국가급 정신문명촌”으로 지정받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마을사람들은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거액을 투자,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민속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양어장’을 겸한 연못과 ‘정자’, 12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1개소를 비롯한 ‘막걸리집’, ‘개고기집’ 등 무려 12개의 식당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관광객을 위해 ‘탈춤’과 ‘부채춤’을 공연할 수 있는 민속무용단을 조직하여 공연을 한다. 특히 ‘환갑잔치’와 ‘첫돌잔치’ 등은 주민들의 일상적 행사이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다.

최근에는 민가를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1개월 평균 4천여 명의 관광객이 86호에서 민박을 하고 있다. 투숙객들은 마을의 공터에서 주민들이 부르는 전래민요를 듣고 전통무용을 감상한다. 식당과 가정에서는 ‘순대’, ‘김치’, ‘찰떡’ 등을 맛보며 놀이터에서 ‘그네’,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즐긴다.

민속 문화의 관광상품화는 부존자원이 없는 지역이나 집단의 경제에 도움을 준다.²⁹⁾ 이 마을은 같은 안도현 마을 가운데도 소득이 낮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민속촌 형성 후로

28) 이대희, 『문화산업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362면.

29) 강형기, 『향부론-문화로 일구는 지방경영』, 서울 : 비봉출판사, 2001, 23-34, 191-220면, 그 밖에 여러 면.

소득이 크게 증대해, 가구당 연평균 소득액은 예전 벼농사만 짓던 때에 비해 무려 1백 78%가 증가한 3천 400위안에 달한다.

3년 전부터 한국의 경기도 고양시 농협과 자매 결연을 맺어 매년 고양시민들 수십 명이 이곳을 찾아와 여가를 즐기다 돌아간다. 장차 조선족자치주는 이곳 홍기촌을 주변에 위치한 백두산을 비롯한 압록강, 고구려 유적지 등 동북 3성의 자연 및 문화와 연결하여 ‘인삼 문화-삼림(森林) 문화-빙설(氷雪) 문화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필자는 2003년 8월 16일, <민족미학연구소> 공연단의 일원으로 이 마을을 방문하여 1박을 했다. 당시의 소감을 일부 옮겨본다.

홍기촌에는 인근 황청현 배초구진과 룡정시 백금향, 안도현 장흥향 신촌 등의 주민과 촌장, 마을 유지 등 60여 명이 모여들어 제법 큰 잔치를 벌였다. 오후 2시 무렵부터 마을 앞 오백여 평의 넓은 마당에서는 <민족미학연구소>와 홍기촌의 자매결연식이 시작됐고, 이어 장장 세 시간에 걸친 공연이 펼쳐졌다. 먼저 한국공연단의 ‘봉산탈춤’ 공연이 있었고, 이어 ‘부채춤’과 ‘접시춤’ 등 네 마을 주민들이 평소 일 하는 틈틈이 익혀두었던 솜씨를 선보였다.

공연이 끝난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는 닭고기와 개고기에 더덕무침, 산나물무침, 그리고 백주를 곁들인 성찬이 차려졌다. 낮이 공연에 이어진 여흥으로 한국손님과 마을주민들 간에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이어졌다.

밤이 이슬해지자 미리 손님을 배정받은 주민들이 회관 앞마당에 줄지어 나타났다. 회중 전등을 들고 안내하는 노파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 부엌과 거실, 방이 잇대어진 장방형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 낮익은 개다리소반에 술과 안주, 토종꿀까지 준비해놓은 노인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과 필자는 늦은 시각까지 한국의 소식과 그 집안의 내력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자신의 선대가 1930년대 함경북도로부터 월경했다는 내력과 현재 딸은 손녀를 맡긴 채 대도시에서 일 하러 나갔으며 손녀가 연길시 사범학교에 우등으로 입학했다는 등의 내용이였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낮에 보았던 주민들의 모습과 공연을 떠올려보니 홍기촌이 단순한 민속촌이 아니라 고향마을처럼 여겨졌다.

이 마을은, 중국 내의 한족 등 다른 민족구성원이 조선족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조선족 스스로 민속 문화를 계승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이다. 이 마을이야말로 R. 윌리엄스의 말대로 “공동체의 원형을 간직한 전원”이면서 민족문화의 보존처이다.

물론 흥기촌에 전해지는 민속이 남한이나 북한 어느것에 비추어보아도 전통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연을 하는 동안 주민들이 입고 있던 한복은 현란한 색상에 장식이 달려 있으며, 민요의 중국 음악에서 받은 영향으로 음정이 높고 박자가 빠르고, 음식에 한족들이 즐기는 향신료가 첨가돼 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만든 조선족의 자세를 단순히 복고나 혁신의 어느 잣대로만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차라리 그것은 창조된 것이라 보아야 옳을 듯 하다. 그 창조성은 1세대의 모국문화에 대한 집착에 대한 반항으로 2세대가 현지에 적응하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선 3세대가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³⁰⁾ 민족문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승계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듯 흥기촌의 민속 문화 보존과 계승 역시 민족문화를 통한 자기정체성 추구를 비롯해 한민족 문화의 구심점 형성, 나아가 이민족과의 공생 내지 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IV. 결론

흔히들 21세기는 국가체제를 넘어선 연대와 포섭, 관용의 정신을 지닌 문화가 주도하는 가운데 소수민족을 비롯한 소수이자 주변적인 존재들이 각광받는 시대, 지역성과 세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 한다. ‘소수’나 ‘주변’이라는 이유로 ‘지역적 특수성’에 매몰되거나 ‘주류’이자 중심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제국주의적 패권’만을 과시해서는 살아 갈 수 없다는 뜻일 터이다. ‘소수’나 ‘변방’은 ‘주류’나 ‘중심’과 제휴해야 하고, 역으로 ‘주류’나 ‘중심’은 ‘소수’나 ‘변방’과 어울려 서로 대화와 협동을 모색해야 한다. 상징적 사례로, 중국에서는 지난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에 자신이 소수민족이라고 밝히고 나선 사람 수가 백만이 넘고, 그 대다수가 조선족이라 한다. 이는 주변적이고 소수인 소수민족의 지위가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아도 좋을 듯 싶다.

그런 거창한 이념이 아니더라도 중국 조선족들은 민족 문화를 지키고 민속촌을 건설해

30) 허원무의 ‘적응과정설’에 의하면, ‘상호작용’과 ‘한정된 사회동화’를 거친 세 번째 단계에서 부정적 동화성과 정체성위기를 극복하고 이른바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이광규, 『在外韓人の 人類學的 研究』, 서울 : 집문당, 1997, 112면.)

관광 상품화하면서 ‘소수로서 주류와 어울리고’, ‘주변에서 중심을 지향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자세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화이부동(和而不同)³¹⁾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소수’이자 ‘주변’으로서 ‘주류’와 ‘중심’을 지향하는 조선족의 자세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실적이고도 이상적인 모델로서 국가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화를 지향하는 장기적이고 원대한 문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 본다. 그런 자세가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사적, 지역적 소수성과 주변성을 극복하고 그 양 속성을 결합한 아시아인이자 세계인으로 평가받을 것을 기대해 본다.



31) 유병호, 앞의 책, 13면.

참고문헌

- 강형기(2001), 『향부론-문화로 일구는 지방경영』, 비봉출판사
- 강명상(1988), 『중공의 소수민족정책』, 용성출판
- 김병호(1993),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 학교방
- 김석배(1995), 「중국조선족의 문화특질」(조선대 동북아연구소, 『동북아연구』 96-1)
- 김장욱, 「연변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 ; 중국 소수민족정책과 민족교육의 역할」(한국청소년연구원(1992), 『민족정체성과 남북한 청소년』)
- 연변당사학회(1989), 『연변40년기사』, 연변인민출판사
- 유병호, 「중국조선족의 민족의식 및 현존문제들」(중앙대 해외민족연구소(1999), 『재중국 조선족의 민족의식에 관한 연구』 발표자료집)
- 이광규(1997), 『재중한국인』, 일조각
(1997), 『在外韓人의 人類學的 研究』, 집문당
- 이대회(2001), 『문화산업론』, 대영문화사
- 이성환(2005),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살림
- 이채진(1988), 『중국 안의 조선족』, 청계연구소
- 전인영(1994),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지역연구』 3권 4호)
- 조룡호·박문일(1997),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조선족 발전방략연구』, 료녕민족출판사
- 조정만, 「중국 요녕성 조선족 동포들의 문화전승과 문화실천에 관한 인류학적 접근」(민족미학연구소(2001), 『중국 조선족 및 남한의 민속을 통해 보는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 심포지움 자료집)
- 조일남, 「우리 주변성이 가지는 의미」(민족미학연구소(2003), 『제2회 민족미학연구소 국제 학술 심포지움 '동북아시아 한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 회복' II 자료집』)
- 최길성, 「중국 조선족 무속 답사기」(비교민속학회(2005. 6.), 『비교민속학 29집』)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출판부
- 에르네스트 르낭 지음, 신행선 옮김(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